

개방시대, 경쟁력강화로 대처해야

現代建設株式會社

새해 새아침을 맞이할 때면 누구나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의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 원대하고 희망찬 미래의 구상을 하게 마련이다. 높은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산을 오르기 전에 그 산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위험에 대비하는 훈련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는 목표달성을 위해 부족한 부분과 시급히 갖추어야 할 사항을 파악하는데에 있다고 본다.

1991년 한해는 세계경제침체에 따른 해외건설부문의 축소, 정부의 잦은 주택정책변경, 과소비풍조, 근로윤리의 변질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한해였다고 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이 90년도에 비해 25%의 매출액신장을 이룩한 것은 성장잠재력의 확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1992년에는 소련연방의 와해 및 각 공화국의 독립, 구미공동체의 경제적 통합확대,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신흥공업국의 급부상 등 국가간의 경제적 실리추구현상이 그 어느때보다도 정도가 심해지고 있으며 개방화, 국제화,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치열한 국제경쟁이 예상된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시장개방확대, 무역수지

적자심화, 4차례의 선거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전반적인 침체국면이 예상되고 건설부문 역시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정책으로 각종 규제조치의 강화 그리고 인력난과 재난이 예상되는 등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실위주의 안정성장을 도모하고 변화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 무엇보다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92년도를 「경쟁력강화의 해」로 정하고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지속적인 업무처리개선, 의식개혁과 일체감조성을 경영목표로 삼고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원가절감 5%를 달성함은 물론 해외공사수주고를 두배 이상 늘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력절감, 체계적인 시장관리와 선진관리기법을 도입한 공정, 공사관리를 통하여 최대한의 효과와 효율을 도모할 것이다. 해외공사는 수익성위주의 선별적 공사수주 및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플랜트분야의 수주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둘째, 시장개방에 대비, 연구개발(R & D)투자를 대폭 늘려 독자적인 선진기술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시장개방은 국내시장의 기존영역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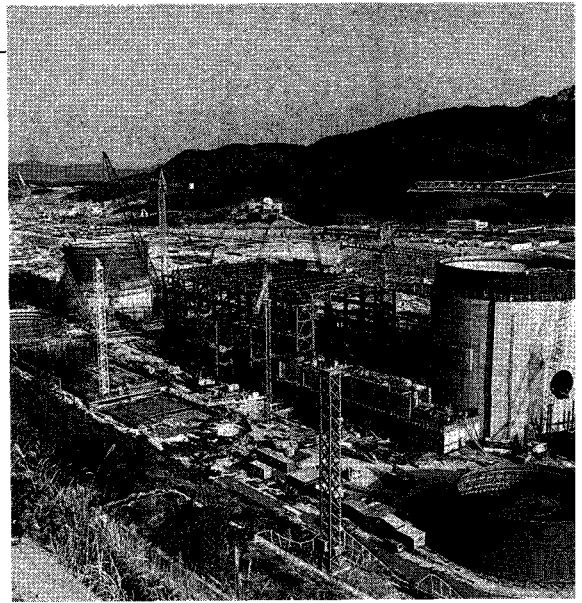
수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해외로 적극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므로 결국 선진 기술개발이 기업의 경쟁력 및 성장여부를 결정 짓는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는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기술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예산회계제도의 개편, 사전자격심사제도입 및 대안입찰제 실시 등으로 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쟁력강화를 실질적으로 유도해 낼 수 있는 정부의 능동적인 정책수행이 수반되어야만 할 것이다.

셋째, 금융비용절감을 위해 차입원을 다양화하고, 넷째로 북방자원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소련 각 공화국간의 유대강화로 기존 자원개발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도 사업내용이 구체화되는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리라 본다.

한편 최근 전력수요의 급증가로 인해 공급에 비력이 감소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설비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현대건설 원자력 사업부의 92년은 더욱 바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1987년 12월에 원자로건물기초굴착에 들어간 영광원자력 3, 4호기공사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신공법을 연구, 개발 적용함으로써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지연되었던 공기를 만회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건설만이 가능하였다고 생각되며 그 결과로 1991년 12월 3호기 원자로를 성공리에 SETTING하였고, 증기발생기 및 CONDENSER 등 주요설비도 건설공정에 맞추어 설치되어 국내최초의 국내업체주도형 원전사업인 영광 3, 4호기는 현재까지 순조롭게 공사진행중이다.

현대건설은 원자력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자체적인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노력함은 물론 그동안의 원전시공으로 축적된 경험을 관련회사(설계, 기자재제작회사 등)에 사전 검토후 반영하는 PRE-PROJECT 업무를 동시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전기술자립목표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82년에 ASME 인증서를 획득한 이래 지난해 3월 4번째 갱신을 함과 더불어 지난 11월에 실시된 ASME JOINT REVIEW를 통하여 비원자력분야인증서도 갱신하였다. 아울러 美내셔널보드가 발행하는 REPAIR STAMP인 「R」스탬프를 국내건설회사로서는 최초로 취득하게 되어 가동중에 있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REPAIR 및 ALTERNATION 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영광현장에 도입된 CAD 시스템의 ISO 도면 제작은 작업성향상 및 정확성을 바탕으로 능률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자재관리, 도면관리 등을 자체개발한 전산시스템으로 업무처리효율을 높여 완벽한 기술관리로 발주자 및 관련사와의 신속한 업무연계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시공관리체제로 돌입하였다.

이러한 질적인 도약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목표관리 및 원가절감, 책임의식을 자각하여 업무의 비능률요소제거, 신기술개발과 실용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992년 한해도 현대건설은 원자력건설의 선두주자로서 축적된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전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값싸고 안전한 전기를 공급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